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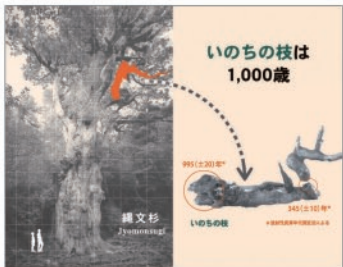


작은 지구 야쿠시마 섬

- 규슈 지방 최고봉 1,936m의 미야노우라다케 산이 우뚝 서 있는 야쿠시마 섬은 둘레가 130km, 면적 500km²의 90%가 숲인 바다 위의 산 덩어리입니다.
- 약 1,550만 년전 마그마에서 태어난 화강암 덩어리가 해저의 퇴적암을 밀어올리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야쿠시마 섬입니다.
- 아열대 섬이지만 산꼭대기는 홋카이도와 비슷한 기후로 일본의 자연을 축소해 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에 부러져 떨어진 조몬스기 삼나무 가지는 수천 년을 사는 거목의 생명력과 숲의 역사를 말해주는 존재로서 "생명의 가지"라 명명되었습니다.



조몬스기 삼나무의 종자

조몬스기 삼나무
생명의 가지

이것이
생명의
거목이다

오리지널 뮤지엄 숍

여기서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소품들과 야쿠시마섬 · 야쿠스기 삼나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오리지널 서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숲의 로봇
 야쿠자루 키홀더
 귀여운 시계들
 날지 핸드폰 고리

야쿠스기 자연관 오리지널 우편엽서
 오리지널(책적)
 ① 작은 지구 야쿠시마 섬
 ② 야쿠시마 야쿠스기 이야기
 ③ 야쿠스기 거목 · 유명 나무
 이해하기 쉽고 만들기!

별관 '야쿠스기노 야카타'

야쿠스기 자연관 본관

별관에는 츠쿠바 EXPO(1985) 행사장에도 전시했던 거대한 그루터기 및 오리지널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 공예실이 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 길

기겐스기 삼나무 → 야쿠스기 랜드 → 야쿠스기 자연관 → 미야노우라 · 공항 방면 → 안보 → 오노아이이다 방면

- ◆ 야쿠스기 삼나무 길
 - 개관시간/9:00~17:00(입장은 16:30까지)
 - 입장료/어른 600엔, 고등학생 · 대학생 400엔, 초중학생 300엔 (단체 20명 이상인 경우 1인 100엔 할인합니다) ※단체 · 그룹 손님께서는 관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사전에 연락해 주십시오.
 - 휴관일/매월 첫째 화요일, 연말연시(12월 29일~1월 1일)

야쿠스기 자연관

(우)891-4311 일본국 카고시마현 쿠마게군 야쿠시마초 안보 2739-343
TEL 0997-46-3113 FAX 0997-46-3168
URL <http://yakusugi-museum.com/>



나무 높이 25.3m, 흉기 둘레 16.4m/조몬스기 삼나무

YAKUSUGI MUSEUM
야쿠스기 자연관
야쿠시마 섬

세계유산 등재지/10,747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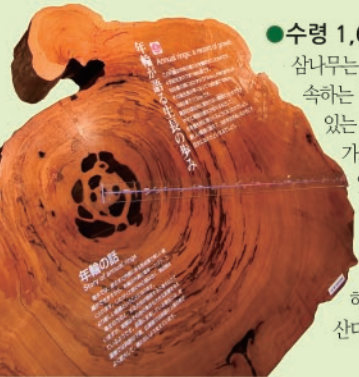
야쿠스기 탐험관

야쿠스기 삼나무 숲은 사람의 발길을 거부해 온 비경은 아닙니다. 야쿠시마 섬의 사람들이 500년 이상 전부터 거목을 벌채해 생활에 이용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심오한 숲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령 1,660년의 야쿠스기 삼나무

삼나무는 일본 고유의 식물로 알려져 있는 낙우송과에 속하는 나무이며, 야쿠시마 섬 산간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삼나무를 야쿠스기 삼나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로로 둥글게 자른 원반에 나이테가 1,660개 있습니다. 중심부에서는 직경 37cm 정도로 500개나 나이테가 있는 것을 보면 성장이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란 야쿠스기 삼나무는 재질이 치밀하고 수지분이 많아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 숲의 역사

에도시대에 태벌(벌채법의 하나)된 터에는 고스기(작은 삼나무)가 자라나 숲이 재생되었습니다. 이후 대량 벌채의 시대를 거쳐 생태계를 살린 입법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벌목 도구

에도시대부터 전해져 온 나무꾼의 도구는 다양합니다. 규슈 지방 각지와 마찬가지로 주로 도사 지역의 칼날이 사용되었습니다.



●통나무로 비교해 본 각지의 삼나무

같은 굵기라도 수령은 각각 다릅니다. 나이테를 비교해 보면 야쿠스기 삼나무는 영양분이 적은 화강암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성장이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 벌채용 대형 체인톱

1956년에 야쿠시마 섬으로 도입된 전장 2m, 무게 20kg의 체인톱입니다. 기계화에 따른 대량 벌채의 역사를 만든 귀중한 자료입니다.



●야쿠스기 삼나무의 히라기

히라기는 야쿠스기 삼나무를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가공한 자부재로 에도시대에 대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공물로도 사용된 중요한 산물이었습니다. 곧은 야쿠스기 삼나무를 쓰러뜨려 칼로 작게 잘라 히라기를 만든 후 사람들이 등에 지고 해안까지 운반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벌목 터에는 고스기라 불리는 젊은 야쿠스기 삼나무가 쑥쑥 자랐습니다. 현재 볼 수 있는 야쿠스기 삼나무의 대부분은 가공하기에 적절하지 못해 자르고 남은 이형 거목과 에도시대에 벌목 터에서 자란 고스기 삼나무의 대군입니다.

광차 · 디젤기관차

야쿠스기 삼나무는 물론 생활물자 운반이나 주민들의 이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우주야쿠스기삼나무

2000년 2월 12일 모리 우주비행사와 함께 우주에 다녀 온 야쿠스기 삼나무의 씨앗에서 자란 삼나무. NASA의 증명서도 있습니다.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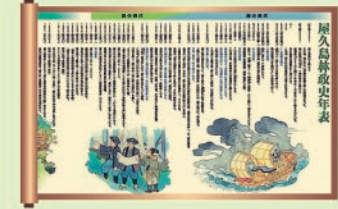
전문 전시실

야쿠스기 삼나무 활용을 권장한 성인 토마리 조치쿠의 비디오 그림이야기, 입업행정사 연표, CG를 활용한 일손기 삼나무 재현, 고스기다니 소개 등을 통해 야쿠스기 삼나무 이용의 역사를 다각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일손기 삼나무 재현 CG



●야쿠시마 입업행정사 연표



●고스기다니와 삼림제도



1967년의 고스기다니 광자를 이용한 야쿠스기 삼나무 반출 체인톱을 이용한 벌채
1924년 안보 강 상류에 탄생한 고스기다니 벌채지에는 학교도 있었고, 가장 번창했을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국유림 사업 축소와 더불어 반세기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It's New!

야쿠시마 섬, 숲과 사람의 이야기

좋은 향기를 지닌 야쿠시마 섬 삼나무를 쌓아 올린 독특한 분위기의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야쿠스기 삼나무 '도마이보쿠(남이저 땅에 묻힌 나무)' 반출 모습을 담은 귀중한 사진이나 새로 제작한 영상 "숲과 사람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야쿠스기 탐험관】

It's New!

자동기계장치 '지스기 오브제'

야쿠시마 섬의 자연을 소리나 리듬으로 표현한 자동기계장치기 등장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톱니바퀴로 옮겨진 나무공이나 유리구슬이 지스기(사람이 심어 서 키운 삼나무) 레일을 신나게 달립니다.



【자연 파노라마관】

갤러리

야쿠스기 삼나무 나무짜기를 즐길 수 있는 갤러리에서는 학예사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스기다니 및 야쿠스기 삼나무 벌채에 관한 역사적으로 귀중한 동영상도 상영하고 있습니다.